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독다독 모둠에서 발표할 주제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도서관’입니다. 요즘은 단순히 도서관의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의 아름다움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는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먼저 소개할 도서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북 마운틴 도서관입니다. 2012년에 개관된 북 마운틴은 자연을 주제로 하여 도서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숲처럼 꾸몄습니다. 도서관은 피라미드형 건물로 사면은 자연 채광이 가능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내부 서가에는 북 마운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7만 권이 넘는 종이 책과 8만 권의 전자책을 산 모양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마치 자연 속에서 일광욕을 즐기듯 남녀 누구나 책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여주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기원전 220년부터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던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2002년 새롭게 개관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의 외관은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하여 건축했는데, 이것은 태양이 인간 세계와 문화 활동을 비춰준다는 고대의 의미를 되살린 것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도서관의 외벽에는 한글을 비롯한 세계의 문자들을 새긴 석판이 모자이크처럼 장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인이 설계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입니다. (동영상을 보여주고) 보신 것처럼 도서관 중심에는 1층부터 4층까지 하나로 통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지식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1층 한가운데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분수가 있는데, 이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아와 마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5층부터 9층까지는 나선형 계단의 중앙 열람실 공간이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펼쳐져 있고, 천장이 넓게 뚫려 있어 자연 채광이 가능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청중을 둘러보며) 지금까지 공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도서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공간미를 살린 특색 있는 도서관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어려운 용어의 의미를 풀어서 제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⑤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다음은 위 발표를 듣고 작성한 모둠별 상호 평가지이다. 평가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둠별 상호 평가지>**

◦ 단 원: (3) 배려하는 말하기  
 ◦ 모둠명: ( 다독다독 )

평가 내용	그렇다	아니다
◦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 비속어를 사용하여 청중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
◦ 주어진 상황에 어울리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 말하기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 성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3~5] 다음은 두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1**: 다음 주에 우리 반 자리를 새로 정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반장과 부반장이 미리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학생2**: 아, 그래. ㉠ 작년에 해봤던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떨까? 일찍 오는 사람부터 원하는 자리에 앉기. 우리 반에 지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학생1**: (상대방을 살펴보며) 그것도 좋은데, 집이 먼 친구들한테는 너무 불리하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생2**: 그럼, ㉡ 제비뽑기 알지? 이 방법은 어떨까?

**학생1**: 응, 그거 참 좋다. 근데 제비뽑기는 결과에 따라서 눈이 좋지 않은 학생까지도 맨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거 같아. 이런 친구들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2**: ㉢ 맞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먼저 제비뽑기를 하고 원하는 사람끼리 자리를 서로 맞바꿀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학생1**: 아휴, 참! 아니야. (말이 빨라지며) 그런 예외 조항을 두면 서로 친한 사람끼리만 앉게 될 수도 있고, 부탁을 하니까 원치 않아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잖아. 하여튼 난 반대야.

**학생2**: ㉣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빨리 하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학생1**: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예외를 두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자는 말이야.

**학생2**: 응, 그렇구나. 그럼, 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학생1**: (손뼉을 치며) 아! 이거 어때? ㉤ 우선 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구역을 정하고, 그 친구들만 제비뽑기를 하게 하자. 다른 친구들은 나머지 구역에서 제비뽑기하고.

**학생2**: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 정도의 배려는 우리 반 친구들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다시 해서 자리를 바꾸는 게 어때?

**학생1**: 응, 좋아. 한 달에 한 번 바꾸면 잘 모르는 친구하고 짝도 할 수 있고, 안 좋은 자리에 앉았던 친구도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학생2**: 좋아. 그럼 자리 정하기는 제비뽑기로 하되, 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앞자리에서 따로 제비뽑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는 걸로 말씀드리자. 선생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학생1**: 그래, 좋아. 이렇게 우리의 일치된 의견을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거 같아.

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의견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 ② ㉡: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 두 학생을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한 말하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며 의견 관철하기
- ② 반대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통해 양보 유도하기
- ③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칭찬을 이어 가며 격려하기
- ④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기
- 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제안을 설득하기

5. <보기>를 참고하여 ㉦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는 대화의 원리가 있다.

- ① 난 네 생각이 별로 좋지 않아. 예외 조항을 두면 왜 나쁘다는 거지?
- ② 방금 말한 거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천천히 다시 한 번 말해 줄래?
- ③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 줄게. 미안하지만 다시 한 번 자세히 말해 주면 안 되겠니?
- ④ 너는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거 같아. 근데 말이 조금 빠른 편이라 이해하기가 어려워.
- ⑤ 네 생각도 참 좋은데, 지금처럼 네 생각만 강요하듯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6~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제13회 교내 백일장**

- 글제: 안개, 내일, 풋볼
- 분야: 운문, 산문
- 장소: 운동장
- 일시: 2017년 9월 6일 오전 9시~11시
- 유의사항: 인터넷이나 책 등을 이용할 수 없음.

○○ **고등학교 국어교과부**

(나) 초고

눈 내린 뒤라 열은 구름이 끼어 있어서 보름달이 어스름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다.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와 달라 힘들었다.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보고 싶어졌다. ( ㉠ )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학교 때 고전문학반을 ㉡ 담당하셨던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선생님께서 댁에 계시려나 생각하며 골목에 들어섰다. 마침 선생님 서재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사모님께서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선생님께서 계신 서재로 안내하셨다. ㉢ 선생님께서는 책을 보고 계셨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풋볼을 켜다. ㉣ 풋볼에 비친 내 그림자가 어지럽게 벽에서 춤추고 있었다. 풋볼을 대하고 마주 앉으니 고등학교 생활로 힘들었던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문득 창문을 보니 창밖에 무엇인가 흔들리는 빛이 있어서 나는 선생님께 ㉤ 물었다.

저것은 무엇이나는 내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나의 곁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다. 내 앞에 있는 풋볼 [A] 이 꺼지려고 하면서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방금 전에 본 현상이 풋볼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

곧 초가 다 타 버려 마침내 킁킁한 방에 두 사람이 있게 되었다. ㉥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과 한동네에 살 때, 눈 오는 밤에 찾아뵈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손수 차를 끓이셨고 저는 화로에 떡을 노릇 노릇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기운이 화끈 올라와 손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떡을 화로에 떨어뜨렸잖아요. 선생님과 저는 서로 쳐다보며 몹시 즐거워했죠. 그런데 몇 년 새에 선생님의 머리는 눈처럼 허영게 세고 저 역시 수염이 거뭇거뭇 돋았네요.”

이 말끝에 서로 한참을 바라보았고 선생님은 내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 나는 아직도 선생님께서 손수 끓여주셨던 차의 온기처럼 따듯했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

6. (가)를 고려할 때, (나)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일장이니까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예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글을 써야겠어.
- ② 글제는 풋볼로 하면서 주제는 사제 간의 사랑으로 해야겠어.
- ③ 심리나 상황 묘사에 자신이 있으니까 글의 분야는 산문을 선택해야겠어.
- ④ 글 쓸 시간이 짧으니까 중심 내용을 앞에만 두는 뒷받침하는 내용을 뒤쪽에 두어야겠어.
- ⑤ 글감을 찾는 데 매체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글감을 마련해야겠어.

7. 다음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적은 것이다. ㉠~㉥를 활용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구성 ..... ㉠
  - 순차적 구성: 독자를 자연스럽게 글의 내용에 차츰 빠져 들게 한다.
  - 역순행적 구성: 결말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형상화
  - 시공간적 배경이나 사건 등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표현 효과
  - 감각적 표현은 독자에게 강한 인상,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다. .... ㉢
  -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면 대상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다. .... ㉣
- 선생님에 대한 기억 ..... ㉤
  - 친구들에게 아픈 친구를 위해 문자를 보내자고 하신 일
  - 선생님 댁을 혼자서 방문한 일

- ① ㉠에서 순차적 구성을 택하여 시간적 순서로 글을 썼다.
- ② ㉡에 주의하여 주제어를 글에 사용하지 않았다.
- ③ ㉢에 따라 시각, 촉각 등의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다.
- ④ ㉣를 고려하여 대조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 ⑤ ㉤에서 선생님에 대한 기억 중 개인적 경험을 소재로 했다.

8. [A]를 <보기>와 같이 바꾼다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저건 뭐죠?”  
 할 때에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뭘 일인지 곁을 한번 봐라. 뭐가 보이냐?”  
 하신다. 나는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촛불을 보며 말  
 한다.  
 “아하, 촛불 때문이네요. 역시 선생님은 제 등불이세요.”

- ①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여 심리 전달의 효과를 높인다.
- ② 시제를 바꾸어 장면이 현재의 상황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 ③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여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임을 보여준다.
- ④ 단조로운 글의 흐름을 대화 장면으로 전환하여 생기를 부여한다.
- ⑤ 선생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기쁨을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여 나타낸다.

9. <보기>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대구로 표현하고 싶어.

- ①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같이 선생님에 대한 내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 ② 구름을 벗어난 보름달은 선생님을 보고파하는 내 마음을 아는지 사방을 환하게 비춰 주었다.
- ③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여 눈길을 걷는 내 발자국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 ④ 시간에 점점 무디어져 가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밤 새록새록 깨우고 싶어졌다.
- ⑤ 눈길이 미끄러워 처음엔 토끼처럼 빠르게 뛰다가 나중엔 고양이처럼 조심히 걸었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미의 쓰임이 잘못되었으므로 ‘담당하셨던’으로 바꾼다.
- ②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서재에 들어서니’를 넣는다.
- ③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④ ㉣: 대상과의 높임 관계를 고려하여 ‘여쭙었다’로 바꾼다.
- ⑤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따라서’로 고친다.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여기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구름’과 같이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한 단어가 다양한 발음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뜻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경우를 살펴보자.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는 합성어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는 파생어가 있다. 이때 합성어와 같이 어근끼리 연결된 경우에는 각 어근의 본래의 뜻이 유지되면 소리대로 적지 않고 끊어적기를 한다.

예 ‘국’ + ‘물’ → ‘국물’ (○) / ‘궁물’ (×)

단, ‘이[齒]’가 합성어에서 ‘니’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어근의 의미 유지와 관계없이 ‘니’로 적는다.

파생어의 경우에는 어근에 접두사가 붙으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리고 어근에 접미사가 붙을 때에 어근의 본래의 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끊어적기를 한다.

예 ‘먹-[食] + ‘-이’ → ‘먹이’ (○) / ‘머기’ (×)

이처럼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어근이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토대로 어법에 맞게 적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11.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빛      ② 옷      ③ 잎      ④ 바깥      ⑤ 하늘

12. 윗글을 통해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사건의 전모가 ㉠ 드러나다. (들다+나다)
- 집으로 ㉡ 돌아가다. (돌다+가다)
- 그의 얼굴에 ㉢ 웃음이 피어났다. (웃다+-음)
- ㉣ 노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놀다+-음)
- ㉤ 사랑니를 뽑더니 통증이 한결 나아졌다. (사랑+이[齒])

- ① ㉠은 어근이 본래 의미에서 멀어져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② ㉡은 어근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어 끊어 적은 것이겠군.
- ③ ㉢은 어근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어 끊어 적은 것이겠군.
- ④ ㉣은 어근이 본래 의미에서 멀어져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⑤ ㉤은 어근이 본래 의미에서 멀어져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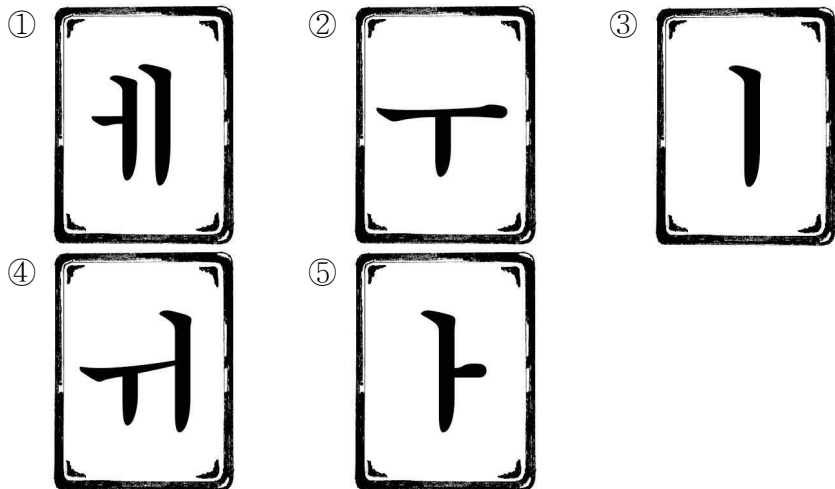
13.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 순	원 순	평 순	원 순
혀의 높이				
고 모 음	ㅣ	ㄱ	ㅡ	ㅈ
중 모 음	ㅕ	ㄴ	ㅊ	ㅊ
저 모 음	ㅙ		ㅍ	

— <보 기> —

◎ 한글 모음 놀이의 승리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제시할 것
-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14. 다음은 자음 습득에 관한 탐구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마’와 ‘아빠’ 중에 어느 단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발음하기가 쉬울까?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 연령에 따라 습득되는 자음들이 다르다. 연령에 따른 자음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가장 먼저 발달한다. 그 중에서도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이자 울림소리인 ‘ㄴ’이 2세 때 습득된다. 그 후 3세 때에는 과열음이자 안울림소리인 ‘ㅁ’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ㄴ’을 ‘ㅁ’보다 먼저 습득하게 되므로 아동들은 부모의 호칭 중 음성학적으로 ‘아빠’보다 ‘엄마’를 보다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ㄴ’은 ‘ㅁ’보다 강하게 과열되며 나는 소리구나.
- ② ‘ㄴ’은 ‘ㅁ’과 달리 목청을 울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구나.
- ③ ‘ㄴ’은 ‘ㅁ’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구나.
- ④ ‘ㄴ’과 ‘ㅁ’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구나.
- ⑤ ‘ㄴ’과 ‘ㅁ’은 모두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다.

15. 다음 대화 상황에 드러난 어휘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성별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어휘가 나타난다.
- ② 특정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어휘가 나타난다.
- ③ 지역적으로 격리되면서 달라진 어휘가 나타난다.
- ④ 불쾌감을 유발하는 어휘와 이를 대신하는 어휘가 나타난다.
- ⑤ 전문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휘가 나타난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16.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이용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역설적 상황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17. (가), (나)의 화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화자의 과거 행위는 현재 이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② (나)에서 화자는 과거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망각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와 달리 미래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가)와 달리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을 전환하고 있다.

18. (가)는 『개벽』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수정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업시**  
 고히고히 보내들이우리다.  
  
**영변엔 약산**  
**그** 진달내꽃을  
**한**아름 싸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뿌려노흔 그꽃을  
 고히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① 1연의 ‘말업시’의 행간이를 통해 4연과의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려 한 것이군.
- ② 2연의 ‘영변엔 약산’을 수정하여 낭독을 부드럽게 하려 한 것이군.
- ③ 2연의 ‘그’, ‘한-’을 삭제하여 4음보를 형성하려 한 것이군.
- ④ 3연의 ‘발거름마다’의 일부 단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려 한 것이군.
- ⑤ 4연의 반점을 제거하여 운율의 통일성을 형성하려 한 것이군.

1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그는 이러한 성찰과 이상 추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반영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죽는 날까지’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의 숙명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② ‘하늘을 우러러’는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괴로워했다’는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고뇌를 나타낸 것이다.
- ④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윤리적 삶과 현실의 삶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이상 실현을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이가 개발되기 전, 인류는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담긴 정보량에 비해 부피가 방대하였고 그로 인해 보존과 가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종이의 개발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종이가 된 책이 주된 기록 매체가 되었고 책의 보존성과 가독성, 휴대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책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었다.

서양은 종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고 질 나쁜 종이를 책을 제작해야 했기에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양장(洋裝)이라 한다. 양장은 내지 묶기와 표지 제작을 따로 한 후에 합치는 방법이다. 내지는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고, 표지는 판지에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감 재료를 접착하여 만든다.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책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책등에 붙인다.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붙여 이어줌으로써 책의 내구성을 높인다. 표지 부착 후에는 가열한 쇠막대로 앞뒤 표지의 책등 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 홈을 만들어 책의 펼침성이 좋도록 한다.

18세기 말에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고, 경제의 발전으로 일부 계층에만 국한됐던 독서 인구가 확대되어 제책 기술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간편하게 철사를 사용해 매는 제책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처음에는 ‘옆매기’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옆매기는 책장 넘김이 용이하지 않아 ‘가운데매기’라 불리는 중철(中綴)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중철은 인쇄지를 포개놓고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ㄷ자형 철침을 이용해 매었는데, 보통 2개의 철침으로 표지와 내지를 고정하지만 표지나 내지가 한가운데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 철침을 4개로 박기도 하였다. 중철은 광고지, 팸플릿 등 오랜 보관이 필요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해 왔으며, 중철된 책은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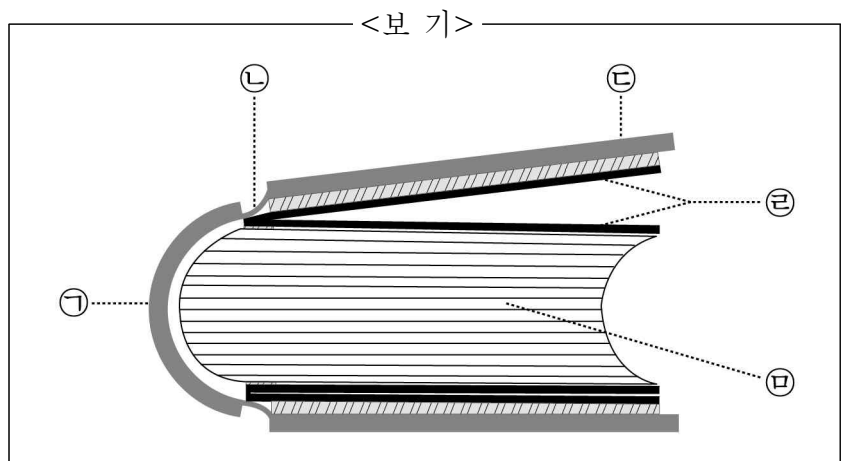
20세기 중반에는 화학 접착제가 개발되며 무선철(無線綴)이라는 제책 기술이 등장했다. 이름처럼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해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했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책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습기경화형 우레탄 핫멜트가 개발되면서 개발 초보다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책을 만들게 되었다. 무선철 기술은 지금도 계속 보완, 발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책은 무선철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 책등: 책을 매어 놓은 쪽의 표지 부분

20.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책 기술의 발전과 한계
  - 문제점 진단과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 ② 제책 기술 현대화의 경향
  - 화학 접착제의 개발을 중심으로
- ③ 제책 기술의 등장 배경과 유형
  - 책 묶기 방식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 ④ 제책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 기술 개발의 방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⑤ 제책 기술의 필요성과 의의
  - 책의 내구성 향상 단계를 중심으로

21. <보기>는 양장에 따라 제작한 책의 단면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접착제를 활용하여 ㉣과 결합되도록 하였다.
- ② ㉡은 가열한 쇠막대로 눌러 펼침성을 향상시켰다.
- ③ ㉢은 따로 제작한 뒤 실매기를 통해 ㉣과 결합시켰다.
- ④ ㉣은 ㉡보다 튼튼한 종이를 사용해 책의 내구성을 높였다.
- ⑤ ㉣은 실로 묶은 후 ㉡을 활용하여 ㉢과 결합시켰다.

22.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제책 회사가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올해 문집 제작을 위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작된 문집은 간편하게 말아서 휴대가 가능했지만 표지의 한가운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올해는 분량이 100쪽 이상 증가한 점과 학생들이 오래도록 문집을 보관하고 싶어 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집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표지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철침으로 옆을 묶겠습니다.
- ② 분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내지와 표지를 별도로 제작한 후 묶겠습니다.
- ③ 표지와 내지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철침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묶겠습니다.
- ④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게 실매기를 한 후 튼튼한 면지를 접착제로 붙이겠습니다.
- ⑤ 책의 단가를 낮추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이 좋은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여 묶겠습니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조선에서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산수화이다. 무엇보다 진경(眞景)은 대상의 겉모습만을 묘사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그림임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겸재 정선은 중국의 화법인 남종문인화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 산하를 주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성리학에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겸재는 재구성과 변형, 즉 과감한 생략과 과장으로 학문적 이상과 우리의 산하에 대한 감흥을 표현했다. 또한 겸재는 음과 양의 조화를 화폭에 담고자 했다.

㉠ <구룡폭도>에서 물줄기가 내 눈 앞에서 쏟아지는 듯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겸재는 앞, 위, 아래에서 본 것을 모두 한 그림에 담아냈다. 폭포수를 강조하기 위해 물줄기를 길고 곧게 내려 굽고 위에서 본 물웅덩이를 과장되게 둥글게 변형하였다.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폭포수의 감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재하는 폭포 너머의 봉우리를 과감히 생략했다. 절벽은 서릿발 같은 필선을 통해 강한 양의 기운을 표현한 반면 절벽의 나무는 먹의 번짐을 바탕으로 한 묵법을 통해 음의 기운을 그려냈다.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는 단원 김홍도이다. 국가의 공식 행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화원이었던 단원은 계산된 구도로 전대에 비해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을 보였다. 그는 초상화에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대상의 완벽한 재현으로 자연에서 느낀 감흥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화법 중 원근법, 투시법 등을 수용해 보다 사실적인 경치를 그려내었다.

정조의 명을 ㉡ 받아 단원이 그린 <구룡연>은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담은 것이다. 흘러내리는 물줄기, 폭포 너머로 보이는 봉우리, 폭포 앞의 구름다리까지 사진을 찍은 듯이 생략 없이 그렸다. 과장과 꾸밈이 없이 보이는 그대로의 각도로 그린 것이다. 그리고 절벽 바위 하나 하나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굵기와 농담에 변화를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천이 곧 진경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전통인 것이다. 우리 산하를 진경으로 표현함에는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다. 이러한 진경산수화는 19세기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2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가 의식과 작품을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의 독창성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작품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이론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④ 화풍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의 예술성을 전문가의 평을 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2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겸재는 성리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화폭에 담으려고 하였다.
- ② 단원은 실재하는 경치의 감흥을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③ 진경산수화는 서양 화법의 영향 없이 우리 고유의 화법으로 그려졌다.
- ④ 진경산수화는 우리 산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 ⑤ 겸재와 단원은 필선과 농담의 변화를 통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5. ㉠과 <보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절] 박연폭포가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2절] 박연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네 양인(兩人)의 정만 못하리라.

[13절]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신비로운 풍경에 심신이 새로워지누나.

(후렴) 에~ 에루화 좋고 좋다 어지럼마 디여라 내 사랑아  
— 경기민요, 「박연폭포」 —

\* 범사정(泛槎亭): 박연폭포 앞에 있는 정자

- ① ㉠은 대상에 대한 감흥을, <보기>는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폭포를 소재로 하고 있다.
- ② ㉠은 한 방향에서 바라본, <보기>는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폭포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을 생략하여, <보기>는 대상과의 차이를 강조하여 폭포수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은 원근법을 활용하여, <보기>는 흐르는 물의 모습을 묘사하여 폭포를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 ⑤ ㉠은 묵법을 활용하여, <보기>는 자연물에 비유하여 음양의 원리를 표현하였다.

2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녀는 어두운 옷보다 밝은 옷이 잘 받는다.
- ② 그는 갑작스레 딱딱한 억양으로 말을 받았다.
- ③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한다.
- ④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학교의 통고를 받았다.
- ⑤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금리는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공급자에게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긴다.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한다. 명목금리는 금융 자산의 액면 금액에 대한 금리이며,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돈의 실제 가치인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질금리는 높아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6%인데 1년 사이 물가가 7% 올랐다면, 실질금리는 -1%로 예금 가입자는 돈의 가치인 구매력에서 손해를 본 셈이다.

그리고 명목금리보다는 일정 기간 실현된 실제의 이자 수익률인 ‘실효수익률’을 따져 보아야 한다. 실효수익률은 이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통 ‘만기 1년의 연리 6%’는 돈을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할 경우 6%의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이다. 정기예금은 목돈인 100만 원을 납입하고 1년 뒤에 이자로 6만 원을 받지만,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목돈을 만드는 정기적금은 계산법이 다르다. 정기적금은 첫째 달에 불입한 10만 원은 만기까지 12개월 분 6%의 이자가 붙지만, 둘째 달에 불입한 10만 원은 11개월의 이자 5.5%만 받는다. 돈의 예치 기간이 줄면 이자도 줄어 실효수익률은 3.9%에 불과하다. 이런 이자 계산의 방식은 대출금리도 유사하다. 1년 뒤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다면, 대출금리가 연 6%일 경우 6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하지만 원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갚으면, 줄어든 원금만큼 매월 이자도 적어진다.

또 예금이나 적금의 기간이 길어서 이자를 여러 번 받는다면, 매번 지급된 이자가 원금이 되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인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단리인지도 살펴야 실효수익률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자는 금융소득이어서 소득세 14.0%와 주민세 1.4%를 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이자 금액이 나온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고, 굴리고, 빌릴지의 선택 상황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현재의 소비를 늦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7.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메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금리 : (이자 금액 ÷ 원금) × 100 ..... ①
- ◆ 실질금리 : 금융 자산의 액면 금액 - 물가상승률 ..... ②
- ◆ 실효수익률 : 일정 기간 실현된 실제 이자 수익률 ..... ③
- ◆ 복리 : 이자도 원금이 되어 이자가 붙는 방식 ..... ④
- ◆ 금융소득의 세금 : 소득세 + 주민세 ..... ⑤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해야 결정될 수 있다.
- ②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금리가 명목금리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금리는 지금 소비할 것인가와 소비를 늦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실효수익률을 알아내려면 이자가 붙는 시기와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을 따져보아야 한다.
- ⑤ 정기예금은 목돈을 형성할 때, 정기적금은 목돈이 형성되었을 때 각각 이용되는 방법이다.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영수는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용돈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고, 5만 원을 학용품비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고 380만 원 정도인 대학입학등록금을 혼자 힘으로 마련할 생각으로, 은행의 저축상품을 알아보았다. 현재 연 6% 금리의 3년 만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있으며, 모두 단리로 계산된다고 한다. 영수가 따져 보았더니, 정기적금의 실효수익률은 9.25%이었다. 영수의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 A ]라고 조언하였다.

- ① 용돈 5만 원을 매월 정기적금에 넣으면, 3년 뒤에는 목돈이 생겨 대학입학등록금을 낼 수 있어.
- ② 용돈 15만 원 전부를 3년 동안 매월 정기적금에 넣어도 은행 금리가 낮아서, 대학입학등록금은 마련할 수 없어.
- ③ 쓰고 남은 용돈 10만 원을 매월 정기예금에 넣으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380만 원이 넘는 목돈이 되네.
- ④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내는 정기적금에 들면, 20만 원이 넘는 이자가 생겨서 대학입학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지.
- ⑤ 정기예금의 실효이자율이 정기적금보다 높으니,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대학입학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어.

30.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 : 인상(引上)되었다면
- ② ㉡ : 용이(容易)하다
- ③ ㉢ : 상환(償還)한다면
- ④ ㉣ : 부가(附加)되는
- ⑤ ㉤ : 보류(保留)하고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가와 시조는 일반적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 관계를 설명한다. 시조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 중, 10구체 향가에서 비롯하였으리라는 설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학자들은 초기의 4구체나 과도기 형태인 8구체가 아닌, 10구체를 향가 중에서 정제된 형식으로 본다. 10구체는 대개 '4구+4구+2구'의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낙구에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추게 된 데에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 향가의 감탄사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전승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간결한 형식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각 장 4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설시조가 출현하게 된다.

향가와 시조는 형식적 측면에서와는 달리 내용적 측면에서의 영향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됐던 향가는 현재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것이 총 25수에 불과하고, 위홍과 대구화상이 간행했다는 향가집 『삼대목』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내용은 주로 불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지만, 추모(追慕), 축사(逐邪), 안민(安民), 연군(戀君) 등 다양하다.

반면,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융성한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시조의 주제는 유교적 이념과 자연에 대한 동경이었는데, 이는 조선 사대부들의 이상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시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로 인하여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경향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시조에는 새로운 인간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현실적 삶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 ㉠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 충담사, 「안민가」 -

(다) 평생에 일이 업서 산수 간에 노니다가  
 강호에 ㉡ 낚자되니 세상 일 다 니제라  
 엇더타 강산풍월이 귀 벗인가 흐노라

- 낭원군의 시조 -

31.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가는 현재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이다.
- ② 향가의 4구체는 발전 과정에서 불 때 초기 형태에 해당한다.
- ③ 향가와 달리 시조는 지금까지도 작품 창작이 계속되고 있다.
- ④ 시조의 형식미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미의식을 드러내는 데 적합했다.
- ⑤ 시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관념적인 내용을 담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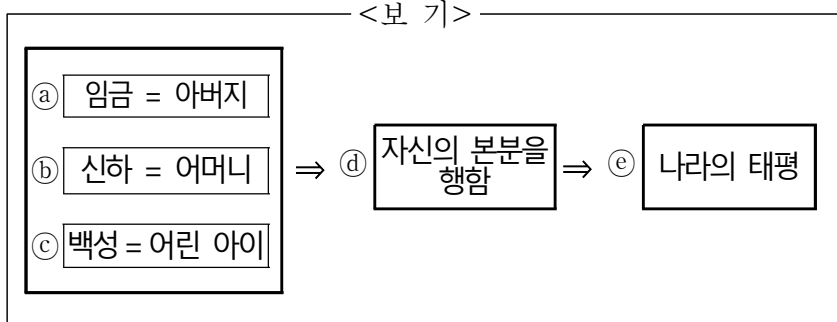
32.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4구+4구+2구' 형태는 (다)의 '초장+중장+종장'의 3단 구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군.
- ② (나)의 '아으'는 전승의 측면에서 (다)의 '엇더타'와 영향 관계에 있군.
- ③ (다)의 4음보 율격은 (나)에서 '4구'가 반복되는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군.
- ④ (다)의 종장에 주제가 제시된 것은 (나)의 9구와 10구에 주제가 제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이군.
- ⑤ (나)와 (다)의 형식은 모두 각각의 갈래에서 대표적인 형식이군.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백성'을, ㉡은 '벗'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은 '이 땅'에 있고, ㉡은 '산수 간'에 있다.
- ③ ㉠은 ㉡과 달리 상상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대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34. <보기>는 (가)의 **안민(安民)**이 (나)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로 보아 국가를 가족의 확대된 형태로 생각한 것이군.
- ② ㉠와 ㉡가 ㉢를 잘 먹여 다스리는 일이 통치의 근본이군.
- ③ ㉣는 ㉡와 ㉢에게 ㉠가 당부하는 것이군.
- ④ ㉣에는 민심을 중시하는 정치의식이 담겨 있군.
- ⑤ ㉤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겠군.

35.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낭원군의 시조는 조선시대 왕족의 정치 참여 금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없었던 심정을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는 모습으로 읊은 것이다.

- ①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평생에 일’로 표현하였군.
- ② 정치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산수 간에 노니다가’로 해소했군.
- ③ 왕족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호에 님자되니’에 담고 있군.
- ④ 왕족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체념의 정서를 ‘엇더타’에 집약해서 나타냈군.
- ⑤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산풍월’을 ‘벗’하는 것에 드러냈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그 아이들의 홀 어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 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 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K시에서 공부하며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있던 ‘나’는 형이 재산을 탕진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온다. 당시 노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새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게 하였다. 다음날 새벽 노인은 눈길을 헤치며 차 타는 곳까지 ‘나’를 내려다준 후 홀로 눈길을 되돌아왔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잖나. 눈발이 그친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잖나.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지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잖나. 오목오목 디더 논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저렇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을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잣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꺾꺾 눌러 참으면서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노인뿐이었다.

“가만 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디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뺏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내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디 그렇게 ㉠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자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

3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삽화처럼 나열하였다.
  -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 ③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였다.
  - ④ 외부 상황과 관련 없이 떠오르는 인물의 의식을 기술하였다.
  - ⑤ 공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었다.

37.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한다.
  - ② ㉠과 ㉡에는 동일 인물의 발자국이 있다.
  - ③ ㉠과 ㉡의 발자국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노인의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 ⑤ ㉡은 ㉠과 달리 노인에게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

38.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이 소설에서 ‘노인’으로 표현되는 어머니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 버린 집을 바라봅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하룻밤 재웠죠. 햇살은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서 만물을 속속들이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햇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에 드러난 ‘노인’의 심리를 말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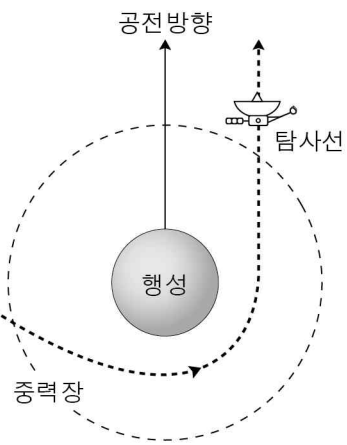
**학생** : 노인은 ( )

- ① 아들을 떠나보내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서러웠을 것입니다.
- ② 자식과 주고받을 것이 없는 관계가 된 것이 슬펐을 것입니다.
- ③ 자신이 베푼 사랑을 알아주지 않은 아들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 ④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 미안했을 것입니다.
- ⑤ 아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한 삶이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 탐사선이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탐사선의 추진력만으로는 이러한 속도에 도달하기 어렵다. 추진력을 마음껏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추진체가 달린 탐사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탐사선을 다른 행성에 접근시키는 ‘스윙바이(Swing-by)’를 통해 속도를 얻는다. 스윙바이란, 말 그대로 탐사선이 행성에 잠깐 다가갔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이다. 탐사선이 행성에 다가갔다가 멀어지는 것만으로 어떻게 속도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스윙바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성이 정지한 채로 있지 않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듯이 외부의 영향으로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탐사선을 행성에 접근시켜 행성의 공전을 이용하는 스윙바이



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탐사선이 **공전하는 행성**에 접근하여 중력의 영향권인 중력장에 진입할 때에는 행성의 공전 방향과 탐사선의 진입 방향이 서로 달라 탐사선의 속도 증가는 크지 않다. 그런데 탐사선이 곡선 궤도를 그리며 방향을 바꾸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워지면 탐사선의 속도는 크게 증가된다. 왜냐하면 탐사선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울수록 스윙바이를 통한 속도 증가의 효과는 크기 때문이다.

탐사선의 속도 증가에 행성의 중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탐사선이 행성에 다가다 보면 행성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으로 탐사선의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윙바이를 마친 후 탐사선의 ‘속도의 크기’ 변화에 행성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탐사선이 행성 중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얻은 만큼의 속도를 잃기 때문이다. 탐사선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롤러코스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속도가 증가하지만,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나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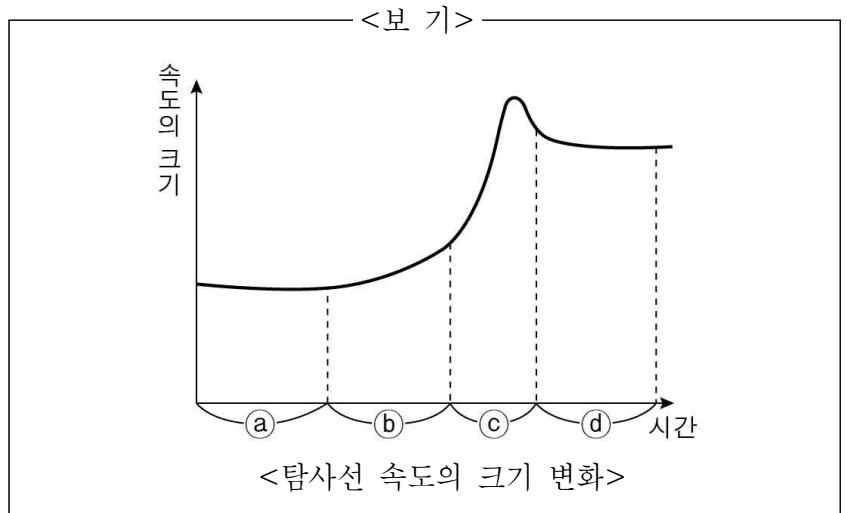
① 스윙바이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오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은 같다. 이 말은 탐사선의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행성의 속도는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주고받은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한 것이므로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은 탐사선은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은 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지구와의 스윙바이를 통해 초속 8.9km의 속도를 얻은 ‘갈릴레오 호’로 인해 지구의 공전 속도는 1억 년 동안 1.2cm 쯤 늦어지게 되었다.

39.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탐사선이 스윙바이를 하는 까닭은?
- ② 스윙바이 동안에 행성의 중력이 변하는 이유는?
- ③ 스윙바이를 할 때 행성의 공전이 중요한 이유는?
- ④ 스윙바이를 통해 속도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은?
- ⑤ 스윙바이 후 행성의 공전 속도 변화가 매우 작은 이유는?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b에서 탐사선은 행성에 점점 가까워진다.
- ③ 스윙바이로 속도가 빨라진 탐사선은 d에서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 ④ b에서 속도의 크기 변화는 c에서 속도의 크기 변화와 같다.
- ⑤ 탐사선은 b~c에서 방향을 바꾸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워진다.

41. <보기>는 스윙바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이다. 윗글의 **공전하는 행성**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어떤 사람이 공수가 탄 말을 출발시켰다. 시속 30km로 달리는 말 위에서 공수가 말의 진행방향으로 시속 150km의 화살을 쏘아, 정면에 있는 과녁에 맞았다면 공수에게 화살은 시속 150km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화살이 시속 180km로 날아가는 것으로 관찰된다.

- ① 어떤 사람                      ② 달리는 말                      ③ 화살
- ④ 정면에 있는 과녁              ⑤ 옆에서 있는 사람

42.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탐사선이 얻은 속도와 행성이 잃은 공전 속도가 같다.
- ② 탐사선이 얻은 속도가 행성이 잃은 공전 속도보다 작다.
- ③ 탐사선이 얻은 운동량이 행성이 잃은 운동량과 같다.
- ④ 탐사선이 얻은 운동량이 행성이 잃은 운동량보다 작다.
- ⑤ 탐사선이 잃은 운동량이 행성이 얻은 운동량보다 크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동 등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신의 아버가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사온데, 신이 어찌 감히 나쁜 짓을 하오리까마는, 신은 본래 천한 종의 몸에서 났는지라, 그 아버를 아버라 못 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 하와, 평생 한이 맺혔기에 집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에 참여하였사옵나이다. 그러나 백성은 추호도 범하지 않고 각 읍 수령이 백성들을 들볶아 착취한 재물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이제 십 년이 지나면 조선을 떠나 갈 곳이 있사오니, 엿드려 빌건대 성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신을 잡으라는 공문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말을 마치며 여덟 명이 한꺼번에 넘어지므로, 자세히 보니 다 풀로 만든 허수아비였다. 임금이 더욱 놀라며 진짜 길동을 잡으라는 공문을 다시 팔도에 내렸다.  
 길동이 허수아비를 없애고 두루 다니다가 사대문에 글을 써 붙였는데, 그 글에다,  
 “소신 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할 것이오니,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시면 잡히겠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그 글을 보고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니, 여러 신하들이 말했다.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판서를 제수하심은 이웃 나라에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임금이 옳다고 여기고 다만 경상 감사에게 길동 잡기를 재촉하니, 경상 감사가 왕명을 받고는 황공하고 죄송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하루는 길동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절하고 말했다.  
 “제가 지금은 진짜 길동이오니, 형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십시오.”  
 감사가 이 말을 듣고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철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동기인데 부형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니, 어찌 애닦지 않으랴. 네가 이제 진짜 몸이 와서 나를 보고 ㉠ 츄허가기를즈 원하니도로허괴특흔으희로다.”  
 하고,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혈점이 있었다. 즉시 팔다리를 단단히 묶어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운 뒤, 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같이 싸고 풍우같이 몰아가도,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랐으나, 대궐 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번 몸을 움직이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올라가며, 나는 듯이 운무에 묻혀 가 버렸다. 장교와 모든 군사가 어이없어 다만 공중만 바라보며 넋을 잃을 따름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보고하니, 임금이 듣고,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랴?”  
 하며, 크게 근심을 했다. 이에 여러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뢰기를,  
 “길동의 소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겠다는 것이라 하오니, 한번 제 소원을 풀면 제 스스로 은혜에 감사하오리니, 그때를 타 잡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고 했다. 임금이 옳다 여겨 즉시 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고 사대문에 글을 써 붙였다.  
 그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고관의 복장인 사모관대에

서띠를 띠고 덩그런 수레에 의젓하게 높이 앉아 큰 길로 버젓이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이제 흥 판서 사은(謝恩)하러 온다.”  
 고 했다.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맞이해 궐내에 들어간 뒤, 여러 관리들이 의논하기를,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끼와 칼을 쓰는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쳐 죽이도록 하자.”  
 하고 약속을 하였다. 길동이 궐내에 들어가 엄숙히 절하고 아뢰기를,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운데, 도리어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가면서 전하와 영원히 작별하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싸여 가니, 그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중략)

한편,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는,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을 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 리나 되어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마음속으로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최선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 진군을 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군장을 삼아, 잘 훈련된 병사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의 접전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해 움직여 바로 도성을 치는데, 격서(檄書)를 울도국에 보냈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홍길동은 글을 울도왕에게 부치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B]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켜 먼저 철봉을 파하고 물밀듯 들어오고 있으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다 보고 나서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대항하라.”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전의 울도왕으로 의령군을 봉했다. 마속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서는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가지지 않으니, 태평세계라 할 만하였다.

- 「홍길동전」 -

43. ㉠은 「홍길동전」의 경판본을 옮긴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을 바르게 끊은 것은?

————— <보 기> —————  
고소설은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쓰지 않는 문자도 있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이때 어절 단위로 끊어 읽는 것이 의미 파악의 시작이다.

- ① 좁혀가기를 ∨ 즈원하니 ∨ 도로혀 ∨ 기특흔 ∨ 으히로다
- ② 좁혀가기를 ∨ 즈원하니 ∨ 도로 ∨ 혀기 ∨ 특흔 ∨ 으히로다
- ③ 좁혀 ∨ 가기를 ∨ 즈 ∨ 원하니 ∨ 도로혀기 ∨ 특흔 ∨ 으히로다
- ④ 좁혀 ∨ 가기를 ∨ 즈 ∨ 원하니 ∨ 도로혀 ∨ 기특흔 ∨ 으 ∨ 히로다
- ⑤ 좁혀가 ∨ 기를 ∨ 즈원 ∨ 하니 ∨ 도로 ∨ 혀기 ∨ 특흔 ∨ 으 ∨ 히로다

4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에게 충고하고 있다.
- ② [B]는 상대와 같은 입장임을 내세워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상대의 의도를 알고 이에 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상대의 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홍길동전」이 지금까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길동의 활약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길동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며,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또한 새 나라를 건설하며, 자신이 가진 신분적 한계를 극복한다. 이러한 모습은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공감을 이끌어낸다.

- ① 새 나라를 건설하려는 모습은 길동이 율도국을 공격하는 것에서 드러나는군.
- ②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기 위해 길동이 도술을 부리는 것에서 나타나는군.
- ③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은 미천한 신분이었던 길동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서 알 수 있군.
- ④ 백성의 편에 서서 펼치는 활약은 수령이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을 길동이 빼앗았다는 것에서 파악할 수 있군.
- ⑤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인정받는 모습은 길동이 병조판서에 제수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